



김해지역에서의 오제스키병 발병을 바라보며

최근의 농장은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질병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이로 인해 질병을 통제하거나 박멸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약품의 사용이나 혹은 환경 개선, 시설의 보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더 큰 악재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권 회 수의사
(주)엘비씨

1. 오히려 커지는 방역문제

최근 경남 김해에서는 오제스키병이 발병하여 많은 모돈을 살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급기야 김해시는 관내 전체 모돈을 채혈하여 오제스키 오염정도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많은 방역요원을 파견하여 채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오제스키병이 발병한 농장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아주 큰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은 방역체계도 훌륭하고, 외부인의 접

근도 통제되었고, 입구에 소독시설도 아주 잘 설치되어 차량과 사람의 소독도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물론 위치는 많은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에서 어떻게 오제스키병이라는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을까요?

방역의 대부분은 바로 의식입니다. 형식에 그치는 여러 조치들은 실제 방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방역은 자신의 농장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농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농장 안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들, 사람들, 동물들에 대한 철저한 차단활동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방역교육을 실시한 사료회사의 차량이나 돼지 운송차량 등의 기사들도 귀찮은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즉, 형식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소독기가 있습니다. 차

량이 진입하면 안개분무를 시작하고 지나가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독을 할 수 있을까요?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샤워 후 모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농장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때 교류하는 다른 농장의 사장 혹은 직원과의 회식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농장에 입식하는 후보돈이 농장입구에서 돈체 소독과 격리순차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혈을 하는 요원들이 채혈량이 많은 관계인지는 몰라도, 채혈한 혈액을 가지고 여러 농장을 방문하여 채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샤워나 옷을 갈아입는 조치는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오히려 오제스키병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 섞인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력부족과 시간부족 등의 이유는 있겠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이런 핑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철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제스키병은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질병이라 양돈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와 같은 위치에서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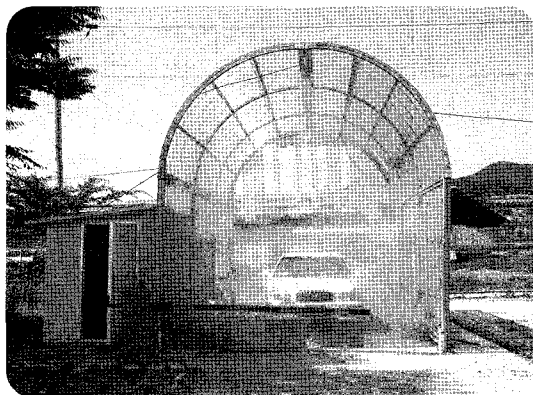
우리의 방역 의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썬코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농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

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치구니 없이 오제스키병의 발병이라는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아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방역의식 수준은 다른 양돈 선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방역의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지게 되어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농가 단체나 방역본부 등은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역의식 개혁사업을 해야 합니다.

2. 농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질병의 통제

이제는 농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질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30%에 육박하는 농장이 상당수 있는 상황인데, 돈가



▲ 농장 안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들에 대한 철저한 차단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의식이 필요하다. 질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를 이해하고, 감염경로를 이해하고 등...

농장의 관리자와 사장은 전담 수의사와 함께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해서 질병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의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제의 사용보다는 사양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한 질병의 통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 하락한 이후에 비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농장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손실이 10% 이하였다면 20~30%의 비용은 절감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의식이 필요합니다. 질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를 이해하고, 감염경로를 이해하고 등... 농장의 모든 관리자와 사장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장의 상황이나 돼지의 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수의사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담 수의사를 통해서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서 질병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사료회사 등에 농장의 방역을 의지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질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농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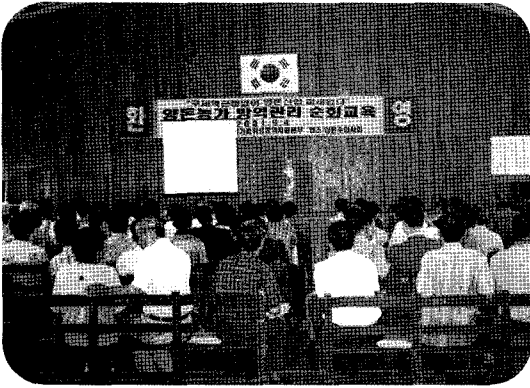
입니다.

양돈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질병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등의 많은 동물약품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더군다나 항생제의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제의 사용보다는 사양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한 질병의 통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농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수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

방역의식은 농장 사장님들만이 가져서는 안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자와 작업자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많은 방역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자와 작업자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많은 방역교육이 필요하다.

체, 농가단체, 개별농가 등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이고 강력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항상 방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행동만으로는 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양돈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방역의식과 지역방역 개념의 이해, 더 나아가 국가방역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본부에만 의지한 방역교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양돈협회 등의 돈가단체, 지역 양돈회 등에서도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아닌 농가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방역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 된다면 이들이 모여서 시·군이 될 것이고, 이런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되며, 결국 국가방역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경남 김해지역의 오제스키병의 발병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발병이야 말로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역의식이 좀 더 강했더라면, 좀 더 이 질병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전문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악성전염병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실천만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각각의 농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양돈**

본지 캠페인

돈열 박멸 없이 양돈산업 미래 없다